

開会辞

黒木 保博(くろき やすひろ)

同志社大学社会学部教授

第8回「日韓こころの交流」プログラム実行委員会委員長



第8回日韓こころの交流プログラムを財団法人ユニバーサル財団のご支援により、また多くの関係者のご協力を得て、古都・京都で開催できますことを心からうれしく思います。

今回の開催準備にあたっては、財団法人ユニバーサル財団事務局、社会福祉法人こころの家族(故郷の家・京都)、社団法人日本社会福祉教育学校連盟の三者による京都準備委員会を発足させ、取り組んで参りました。これまでに着実に実績と成果をあげてきた日韓こころの交流がさらに充実できるように願い、「シンポジウム開催」と「学生・ソーシャルワーカー交流プログラム」を企画し、準備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

まずシンポジウム開催については、テーマ「ニーズに応える社会企業とソーシャルワーク・アプローチ」の下、日韓双方からの基調講演と事例発表をとおして、コミュニティ・ビジネス、ソーシャル・ファーム、ワーカーズ・コレクティブを含む、これからの社会福祉を支える社会企業とソーシャルワーク・アプローチのあり方を模索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開催にあたり、ご多忙の中出席していただいた特別講演者 朴 寶熙様、基調講演者 炭谷 茂様、曹 興植様、またパネリストの諸先生、コーディネーターの先生方に厚く御礼申し上げます。今回のシンポジウム会場をこころよく提供していただきました龍谷大学にも厚く御礼申し上げます。

学生・ソーシャルワーカー交流プログラムでは、韓国で選抜された大学院生・ソーシャルワーカー10名が11月21日から28日までの京都滞在中に、京都市内の社会福祉施設を中心とした施設見学と交流、また同志社大学大学院での授業、龍谷大学大学院での共同研究発表会にての交流を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施設関係者・大学院関係者の皆様方には、こころの交流の意義をご理解いただき、ご協力ご支援を賜りましたことを厚く御礼申し上げます。特に社会福祉法人こころの家族(故郷の家・京都)には全面的なご支援をいただきましたことを厚く御礼申し上げます。

このように、シンポジウムによる日韓の交流、また学生・ソーシャルワーカー交流プログラムによる日韓の交流によって、両国が共通して直面している急速な少子・高齢社会での社会福祉問題解決に力を合わせて取り組むことになりました。21世紀を迎えた世界は、自然環境問題、食糧問題、エネルギー問題、民族・国家紛争問題、経済格差問題等に直面していますが、その問題解決は、もはや一つの国だけではなく、国境を

越えた問題解決への取り組みが必要となっています。
ここに、両国の社会福祉領域実践者・研究者のトップリーダー達また将来を担う若者達が集まり、知見の拡大とネットワーク構築ができることは、問題解決への具体的取り組みになると確信する次第です。

プロフィール

黒木保博(くろき やすひろ)

同志社大学社会学部教授・社会学研究科教授(1993～)
社団法人日本社会福祉教育学校連盟副会長
日本社会福祉学会理事・副会長、日本ソーシャルワーク学会監事

学 歴

同志社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社会福祉学専攻修士課程修了、

経 歴

京都市社会福祉協議会事務局、福祉の風土づくり推進協議会事務局
学校法人同志社企画部長、同志社大学企画部長
同志社大学アメリカ研究所所長、
同志社大学文学部長・文学部研究科長
同志社大学歴史資料館館長、同志社大学社会部長・社会学研究科長
副学長・国際連携推進機構長・国際センター所長

主な社会的活動

日本社会事業学校連盟事務局長、副会長・常務理事
社団法人日本社会福祉教育学校連盟会長
社団法人日本社会福祉士養成校協会理事
日本社会福祉学会理事、日本社会福祉教育学会理事

主な著作等

単著『フロストバレーの子ども達』ミネルヴァ書房、1990
共著『社会福祉の新潮流』ミネルヴァ書房、1998
共著『グループワークの専門技術』中央法規出版、2001
編著『ソーシャルワークと実践システム』有斐閣、2002
編著『社会福祉の思想・理論と今日的課題』筒井書房、2004 他、多数

개회사



구로키 야수히로(黒木保博)

동지사(同志社) 대학사회학부교수

제 8 회「일한 마음의 교류」 프로그램」 실행위원회위원장

제 8 회 일한 마음의 교류 프로그램을 재단법인 유니벨 재단의 지원에 의해, 또 많은 관계자의 협력을 얻어, 옛 도시·교토(京都)에서 개최할 수 있게 된 것을 마음속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의 개최 준비과정에서는 재단법인 유니벨 재단사무국, 사회복지법인 마음의 가족(고향의 집·교토), 사단 법인 일본 사회복지교육학교연맹 3자가 교토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준비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착실한 실적과 성과를 올려 온 일한 마음의 교류가 더욱 충실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심포지엄 개최」와 「학생·social worker 교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준비했습니다.

우선 심포지엄 개최에 대하여는, 테마「요구에 따른 사회기업과 사회복지 접근방법(social work approach)」이라는 주제아래, 일한 양국의 기초강연과 사례발표를 하고, 커뮤니티·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소셜·파무(social farm)、와카즈·콜렉티브(worker's collective)를 포함하는, 앞으로의 사회복지를 유지하는 사회기업과 사회사업(social work)·어프로치의 본연의 자세를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개최에 즈음하여, 다망하신데도 불구하고 출석해 주신 특별강연자 박보희님, 기초강연자 스미타니시게루(炭谷茂)님, 조흥식님, 또 패널리스트(panelist)의 선생님들, 코디네이터의 선생님들에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의 심포지엄 회장을 기분 좋게 제공해주신 류코쿠대학(龍谷大學)에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social worker 교류 프로그램에서는, 한국에서 선발된 대학원생·social worker 10 명이 11 월 21 일부터 28 일까지의 교토(京都) 체류중에, 교토시내의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한 시설 견학과 교류, 또 동지사대학대학원에서의 수업, 류코쿠대학(龍谷大學) 대학원에서의 공동 연구 발표회등의 교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설 관계자·대학원관계자 여러분에게는, 마음의 교류의 의의를 이해해 주시고, 협력 지원을 해주신 것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사회복지법인 마음의 가족(고향의 집·교토)의 전면적인 지원을 해주신 것을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이렇게, 심포지엄에 의한 일한의 교류, 또 학생·social worker 교류

프로그램에 의한 일한의 교류에 의해,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급속한 소자·고령사회에서의 사회복지문제해결에 손을 잡고 열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1 세기를 맞이한 세계는, 자연 환경 문제, 식량 문제, 에너지 문제, 민족·국가분쟁 문제, 경제격차문제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해결은, 이미 하나의 나라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은 문제해결에의 대처가 필요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양국의 사회복지영역실천자·연구자의 톱 리더(top leader)들 또 장래를 짚어지는 젊은이들이 모이고, 지견의 확대와 네트워크 구축을 할 수 있는 것은, 문제해결에의 구체적 대처가 된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프로필

구로키 야수히로(黒木保博)

동지사(同志社)대학 사회학부 교수·사회학 연구과 교수

사단 법인 일본 사회복지교육학교연맹 부회장

일본 사회복지학회이사·부회장, 일본 사회사업 학회감사

학 력

동지사대학대학원 문화연구과 사회복지학 전공 석사과정수료

경 력

교토시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 복지의 풍토만들기 추진 협의회사사무국

학교법인 동지사(同志社) 기획부장, 동지사대학기획부장

동지사대학 미국연구소 소장

동지사대학문학부장·문학부 연구과장

동지사대학역사자료관관장, 동지사대학사회부장·사회학 연구과장

부학장·국제연계 추진 기구장· 국제센터 소장

주요사회활동

일본 사회사업학교연맹 사무국장, 부회장·상무이사

사단 법인 일본 사회복지교육학교연맹 회장

사단 법인 일본 사회복지사양성교 협회이사

일본 사회복지학회이사

일본 사회복지교육학 회 이사

주요저서 등

단저『프로스트 발레의 어린이들』미네루바서방, 1990

공저『사회복지의 신조류』미네루바서방 1998

공저『그룹 워크의 전문기술』중앙법규출판, 2001

편저『사회사업과 실천 시스템』有斐閣, 2002

편저『사회복지의 사상·이론과 오늘 적 과제』筒井서방, 2004,

기타 다수